

2025년 2월 3일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25년 2월 4일 조건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3일  
14: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목 :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정훈)는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을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문의처 :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형준

Tel : (055) 260-5092, E-mail : gyeongnam@bok.or.kr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bok.or.kr> ⇒ 좌측상단 지역본부 ⇒ 경남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붙임>

#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202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작성자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김형준 과장 (Tel : 055-260-5092)  
노유화 인턴 (Tel : 055-260-5083)



# 차 례

## < 요약 >

I. 검토 배경 .....	1
II. 경남지역 자영업 현황 .....	2
III. 경남지역 자영업 특징 .....	3
IV.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	7
V. 시사점 .....	12

## 【 요 약 】

### I. 검토 배경

- 경남은 전통적으로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지만, 자영업 역시 지역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경남 자영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본 고에서는 경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업황 개선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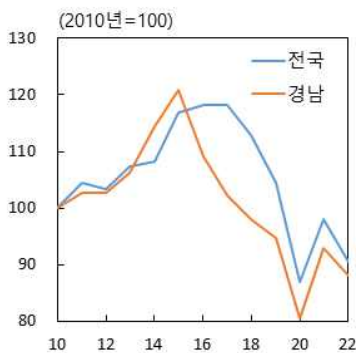
### II. 경남지역 자영업 현황

- (구성)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5.0%)과 음식점·숙박업(20.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령대별 분포는 역U자 형태를 보이며 50대 비중(33.1%)이 가장 높다.
- (경영현황) 자영업자의 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4백만원, 33백만원이며, 자영업자 중 대출이 있는 차주 비중은 51.6%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270백만원 수준이다.

### III. 경남지역 자영업 특징

- (자영업자 1인당 소득 감소세 지속) 경남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경남의 자영업자 1인당 소득과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소득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모두 19.1% 감소하여 전국 평균(각각 16.9%, 18.1%) 및 다른 지역보다 감소율이 큰 편이다.
- (자영업자 부채 증가세 지속) 경남 자영업자의 부채는 증가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전국과 달리 경남은 부채 증가율이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자영업자 수 감소 및 영세화) 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남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 규모도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전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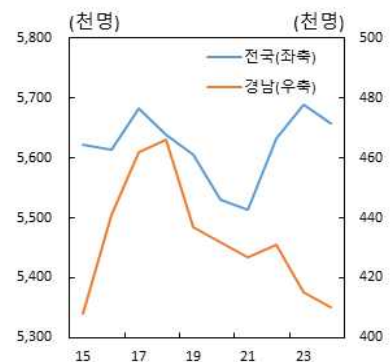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추이



자영업 부채 증가율 추이



자영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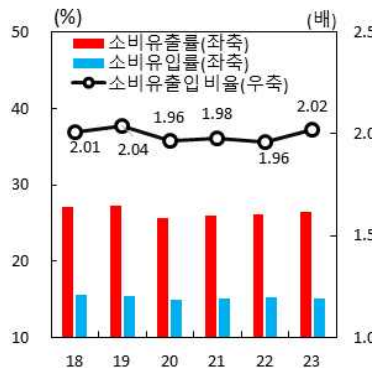
#### IV.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저조) 경남 거주자의 전자상거래 소비 활성화로 경남 자영업자의 경쟁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경남 자영업자 중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8.7%, 자영업 매출액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67.1%로 모두 전국 평균(각각 11.4%, 71.9%)보다 낮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유출이 증가하고, 소비유입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소비순유출 지속) 경남은 상대적으로 소비유입이 저조하여 소비순유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남의 소비유출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소비유입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요식업소와 음료식품에서도 소비순유출이 지속되어, 도내 자영업의 업황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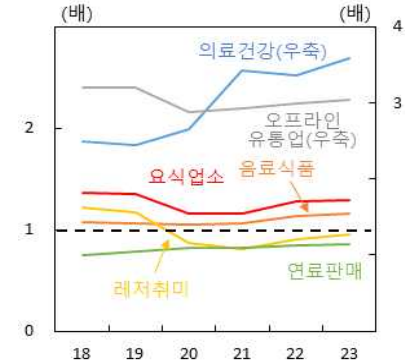
경남 거주자 업종별 카드사용액 추이<sup>1)</sup>



경남 소비유출입 비율<sup>2)</sup> 추이



경남 업종별 소비유출입 비율<sup>2)</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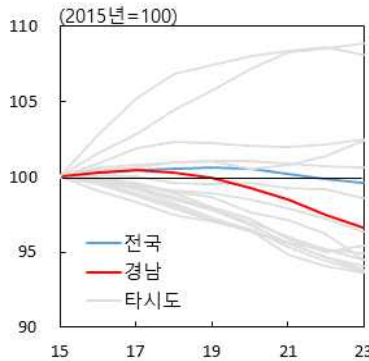
주: 1) 괄호 내는 2023년 전체 카드사용액 중 비중 순위

2) 1 초과시 순유출, 1 미만시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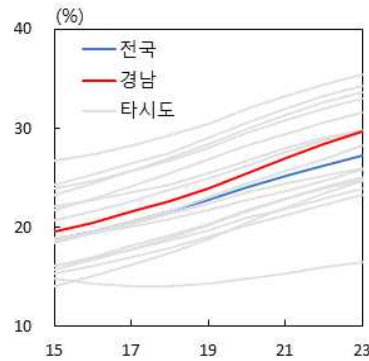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경남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출 규모 감소를 통해 자영업 수요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남의 인구 감소는 자연증감(출생-사망)뿐 아니라 인구순이동(유입-유출)에도 크게 기인하며,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순유출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경남은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자영업에 대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은 퇴직 등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기 때문에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과 도내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간 불일치(미스매치)가 자영업자에 대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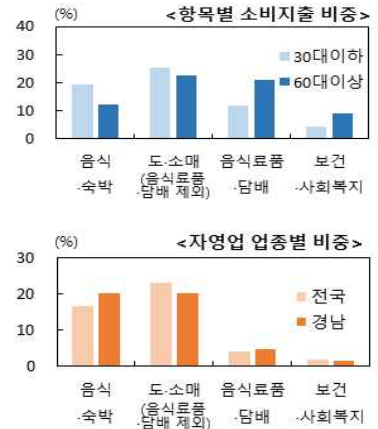
인구 수 추이



60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고령층 소비구조와  
자영업 업종구조간 불일치



## V. 시사점

-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정책 강화)** 도내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제고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유출을 완화하고 소비유입은 확대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수료·광고비 지원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요식업소, 음료·식품 등 소비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여타 지역 관광객의 소비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의 질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트렌드, 자연이나 먹거리 등 지역특색, 경남 주력산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및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 **(인구 감소 및 청년층 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강화)** 인구유출이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사유별로는 직업과 교육을 사유로 주로 발생하므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교육 등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계 자영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폐업, 사업전환 및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자영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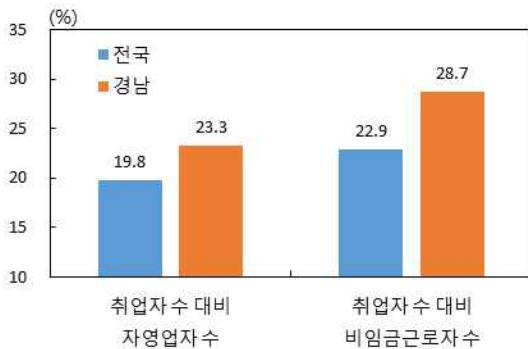
# I

## 검토 배경

1. 경남은 전통적으로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지만 자영업 역시 지역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경남 자영업자 수<sup>1)</sup>(2024년 기준)는 41.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3%를 차지한다. 가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9.5만명)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기준으로는 전체 취업자의 28.7%를 차지한다. 신용 측면에서 보면, 경남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잔액(2024.3/4분기말 기준)은 57.1조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총액(144.5조원)의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목GRDP 대비 규모는 41.5% 수준이다.
2. 그러나 최근 경남의 주력 제조업이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 업황은 소비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sup>2)</sup> 가운데 부진한 상황이다. 경남의 자영업 부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개선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자영업자 및 자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3. 이에 본 고에서는 경남지역 자영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업황 개선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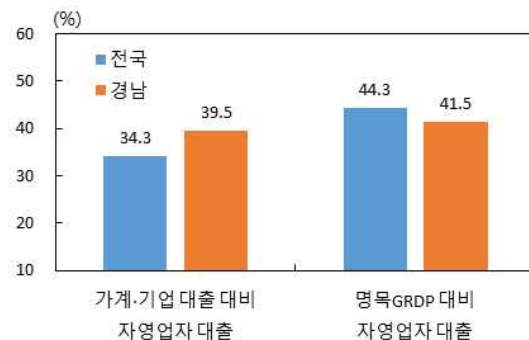
경남 자영업은 고용, 신용 측면 모두에서 지역경제 내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1] 자영업의 고용 측면에서의 비중<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자영업의 신용 측면에서의 비중<sup>1)</sup>



주: 1) 명목GRDP는 2023년, 가계·기업·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4.3/4분기말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한국은행 「지역별 여수신」 및 「가계부채DB」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와 통계는 다양한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1> 「통계별 자영업자 정의 및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2024년중 하락세를 지속(24.1/4 -3.5% → 2/4 -3.3% → 3/4 -4.7%, 전년동기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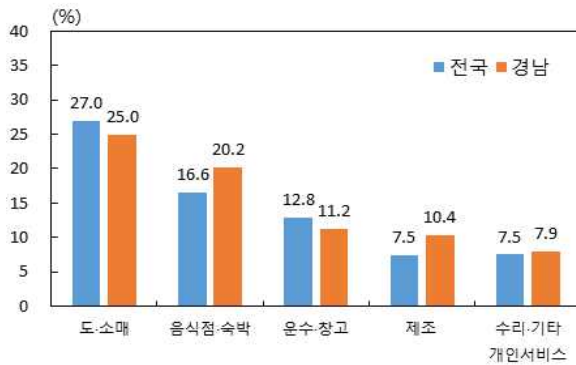
## II

## 경남지역 자영업 현황

4. 경남 자영업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5.0%)과 음식점·숙박업(20.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령대별 분포는 역U자 형태를 보이며 50대 비중(33.1%)이 가장 높다. 업종별, 연령대별 구성이 전국 평균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음식점·숙박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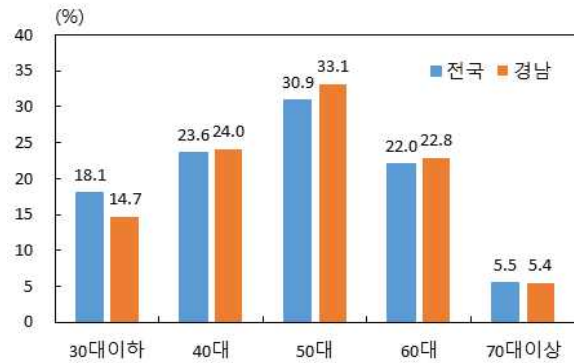
경남 자영업은 전국 평균보다 음식점·숙박업 및 제조업, 고령층 비중이 높음

[그림 2-1] 자영업 업종별 비중<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2] 자영업 연령대별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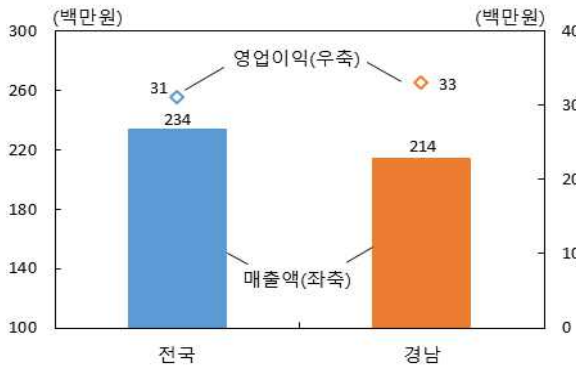


주: 1) 2024년 상반기, 농림어업 제외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MDIS

5. 경남 자영업자의 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4백만원, 33백만원이며, 자영업자 중 대출이 있는 차주의 비중은 51.6%, 차주 1인당 대출잔액<sup>3)</sup>은 270백만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전국 평균보다 작지만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전체 자영업자 중 부채가 있는 차주 비중과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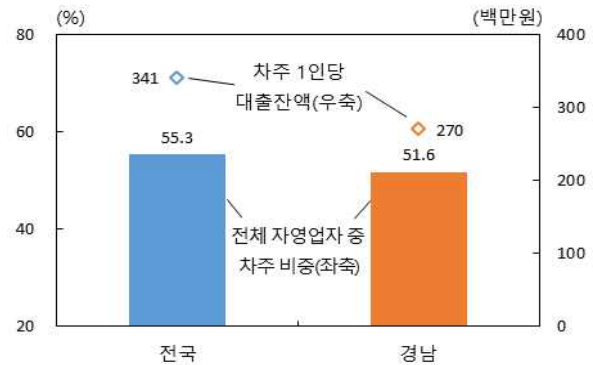
경남 자영업의 업체당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그림 2-3] 자영업 사업체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sup>1)</sup>



주: 1) 2022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그림 2-4] 자영업 차주 비중 및 차주 1인당 대출잔액<sup>1)</sup>



주: 1) 자영업자 수는 2024년, 차주 수 및 대출잔액은 2024.3/4분기말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3)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계 기준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자영업자 부채 분석 범위 및 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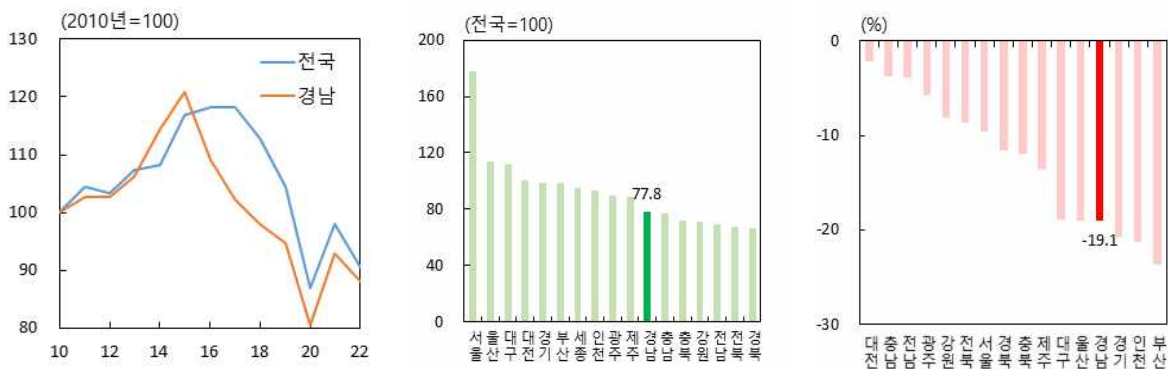
## 경남지역 자영업 특징

- 경남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부채 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최근 들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 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자영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남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 규모도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 1 자영업자 1인당 소득 감소세 지속

6. 경남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통계청 「지역소득」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자영업자 1인당 소득<sup>4)</sup> 추이를 보면, 경남의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경남의 감소폭이 더 큰 모습이다. 2023년 기준으로 경남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77.8% 수준이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증감률을 보면, 경남은 2015년 대비 19.1% 감소하여 전국 평균(16.9%) 및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큰 편이다.

경남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크게 감소  
 [그림 3-1]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추이<sup>1)</sup> [그림 3-2] 지역별 자영업자 1인당 소득<sup>2)</sup> [그림 3-3] 지역별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증감률<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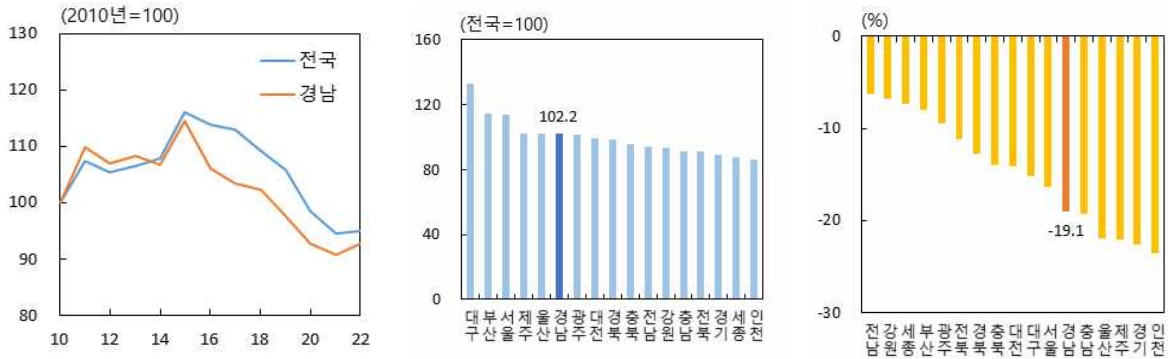
주: 1) 과거와의 비교를 위해 2015년 기준년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2) 2023년 기준  
 3) 2015년 대비 2023년 기준  
 4) 세종 제외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4) 홍민기·손연정·김문정(2022)을 참고하여 가계 혼합소득과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을 더해 자영업자의 총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자영업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7.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소득<sup>5)</sup>도 2015년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는 모습이다. 2022년 기준 경남의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소득은 전국 평균 및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2015년 대비 19.1% 감소하여 전국 평균(18.1%)보다 감소율이 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

경남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소득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크게 감소

[그림 3-4]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소득 추이 [그림 3-5] 지역별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소득<sup>1)</sup> [그림 3-6] 지역별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소득 증감률<sup>2)</sup>



주: 1) 2022년 기준                    2) 2015년 대비 2022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 자영업자 부채 증가세 지속

8. 경남 자영업자의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남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는(2024.3/4분기말 기준) 각각 57.1조원, 21.2만명으로, 2015년말(24.8조원, 8.6만명)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경남의 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달리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차주 수도 전국 평균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2024년 들어 차주 수가 감소한 반면, 경남의 차주 수 증가율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5)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신고건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경남 자영업자의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과 달리 최근 증가율이 상승

[그림 3-7] 경남 자영업 부채 및 차주 수<sup>1)</sup> [그림 3-8] 자영업 부채 증가율 [그림 3-9] 자영업 차주 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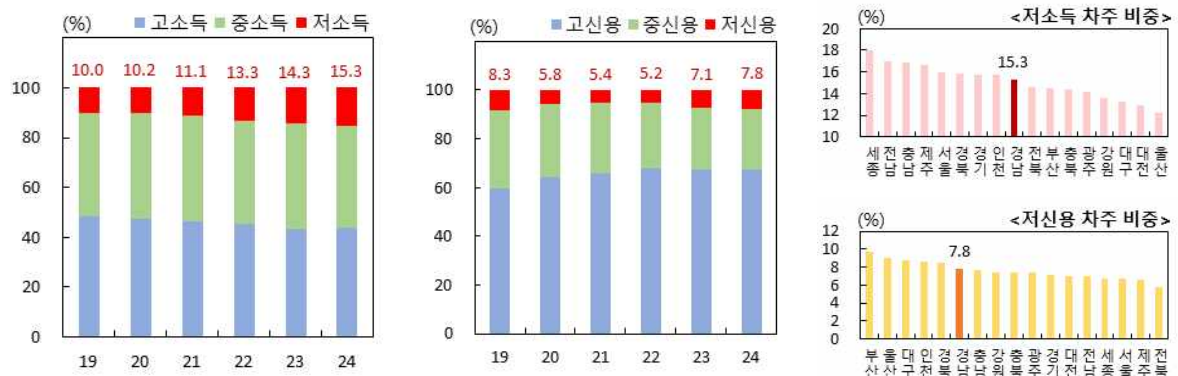


주: 1) 연말 기준, 2024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9. 차주 특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수준별<sup>6)</sup> 비중은 고소득 43.9%, 중소득 40.7%, 저소득 15.3%이며, 신용수준별<sup>7)</sup> 비중은 고신용 67.6%, 중신용 24.6%, 저신용 7.8%이다. 경남은 저소득 차주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감소하던 저신용 차주의 비중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남의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비중을 전국 평균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저소득 차주의 비중은 전국 평균(15.8%)보다 낮지만, 저신용 차주의 비중은 전국 평균(7.4%)보다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경남 자영업자는 최근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증가

[그림 3-10] 경남 자영업 차주 소득 수준별 비중<sup>1)</sup> [그림 3-11] 경남 자영업 차주 신용 수준별 비중<sup>1)</sup> [그림 3-12] 지역별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sup>2)</sup>



주: 1) 연말 기준, 2024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2) 2024.3/4분기말 기준

6) 전국 차주 중 소득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차주를 각각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7) 신용점수 840점 이상, 839점 이하 665점 이상, 664점 이하를 각각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으로 분류하였다.

### 3 자영업자 수 감소 및 규모 영세화

10. 소득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른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남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전국과 달리 경남 자영업자 수는 2019년 큰 폭 줄어든 이후 감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11. 경남 자영업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규모도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경남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9.8%로, 2019년 이후 상승하여 최근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sup>8)</sup> 비중은 2023년 30.2%로 전국에서 강원 다음으로 높다. 또한 17개 시도 중 간이사업자 비중의 순위는 그간 가파르게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화가 더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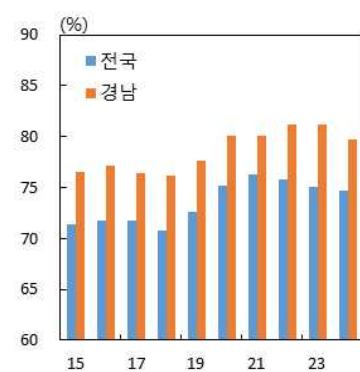
#### 경남은 전국과 달리 자영업자 수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영업 규모도 영세화

[그림 3-13] 자영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4] 고용원無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5] 17개 시도 중 경남의 간이사업자 비중 순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8)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매출액 기준이 2021년부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어, 간이사업자 비중의 추이가 아닌 간이사업자 비중의 17개 시도 중 순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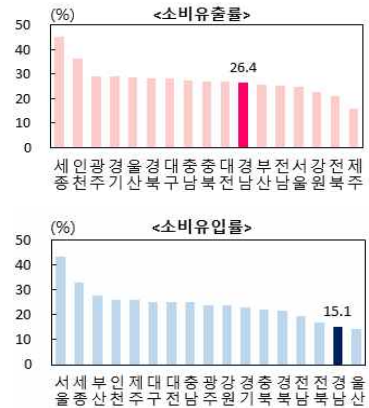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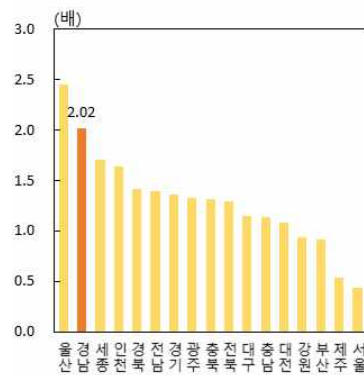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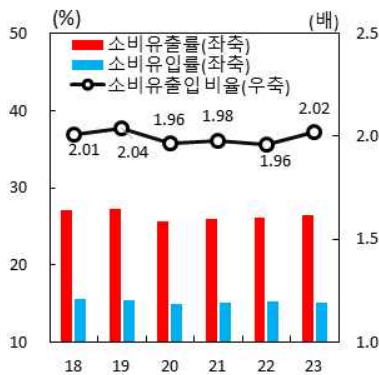


## 2 소비순유출 지속

13. 경남은 상대적으로 소비유입이 저조하여 소비순유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sup>10)</sup>. 신용카드사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남의 소비유출입 비율(역외거주자의 역내소비 대비 역내거주자의 역외소비 비율)은 2.02(2023년 기준, 이하 동일)로,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가 유입되는 소비의 약 2배이며 동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소비유입, 즉 타지역 거주자의 경남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유출률과 소비유입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경남의 소비유출률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소비유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소비 인프라가 타지역 거주자의 소비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남은 소비순유출 상태가 지속

[그림 4-4] 경남 소비유출입 비율<sup>1)</sup> 추이 [그림 4-5] 지역별 소비유출입 비율<sup>1)</sup> [그림 4-6] 지역별 소비유출률 및 소비유입률



주: 1) 1 초과시 순유출, 1 미만시 순유입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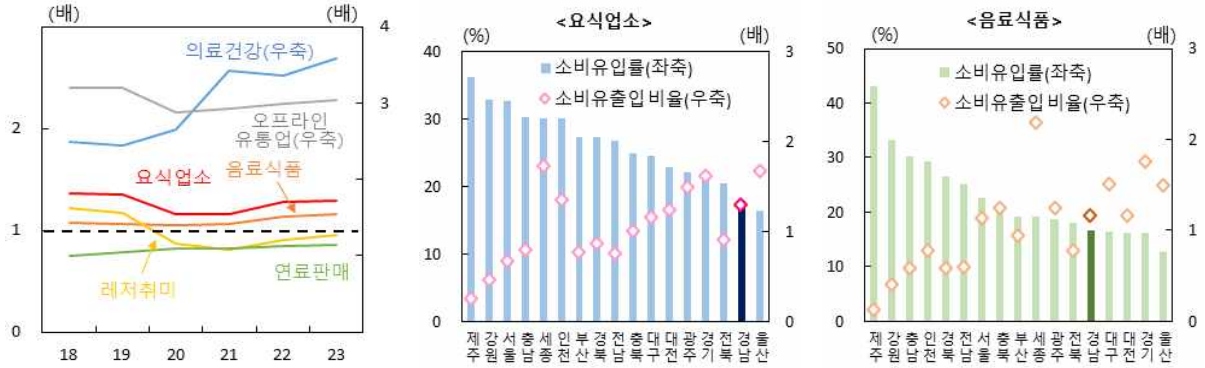
14.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소비순유출이 지속되어 도내 자영업 업황개선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가 순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요식업소와 음료식품에서도 소비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요식업소와 음료식품의 소비유출입 비율은 각각 1.29, 1.15이며, 이는 소비유입이 저조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식업소의 소비유입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음료식품의 소비유입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10) 전자상거래 등 카드 결제액이 주로 본사 소재지로 집계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소비유출입 구조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경남지역 소비유출입 구조 분석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요식업소, 음료식품 등에서 소비유입이 저조

[그림 4-7] 업종별 소비유출입 비율<sup>1)</sup> 추이 [그림 4-8] 요식업소, 음료식품의 소비유입률 및 소비유출입 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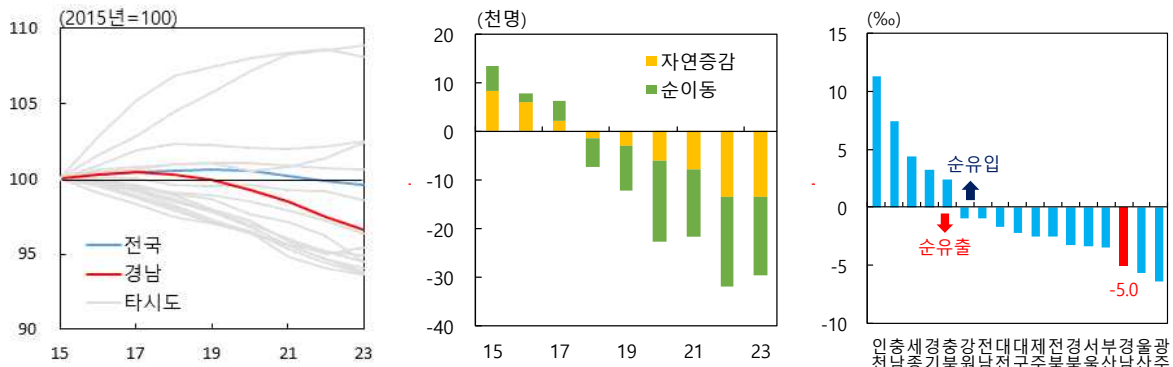
주: 1) 1 초과시 순유출, 1 미만시 순유입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3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5.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소비지출 규모 감소를 통해 자영업 수요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경남의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는 자연증감(출생-사망)뿐만 아니라 인구순이동(유입-유출)에도 크게 기인한다. 인구 천명당 순이동자 수 비율인 순이동률은 -5.0‰(2023년 기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순유출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sup>11)</sup>되어 자영업 수요기반 약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경남은 201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구순유출에도 크게 기인

[그림 4-9] 지역별 인구 추이 [그림 4-10] 경남 인구 증감 요인 [그림 4-11] 지역별 인구 순이동률<sup>1)</sup>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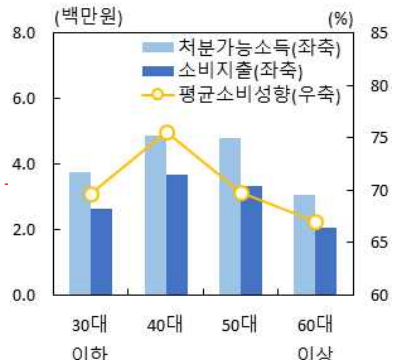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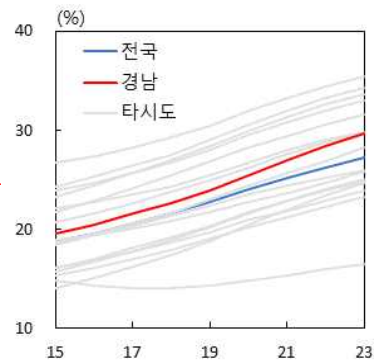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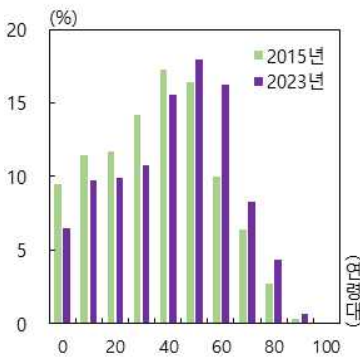
주: 1)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11) 장래인구추계(2022년, 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면 2025~2050년중 경남의 인구감소율은 17.5%로, 부산(22.1%), 울산(22.0%), 대구(20.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전국은 8.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6. 아울러 경남은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자영업에 대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인구구조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40대 이하의 인구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고령(60대 이상)인구 비중은 2023년 29.6%로 경기·제주를 제외한 내륙지방 7개도(평균 32.6%)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를 보면 경남의 인구 고령화는 여타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sup>12)</sup>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 대비 2023년) 경남의 고령층 비중 증가폭(+7.0%p)도 전국에서 울산(+7.3%p)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17. 우선 인구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소비규모 감소 요인(양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현황<sup>13)</sup>을 보면,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퇴직 등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도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의 인구구조 변화가 인구 감소에 더해 추가적으로 도내 소비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남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 및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음  
 [그림 4-12] 경남 인구구조 변화<sup>1)</sup> [그림 4-13]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추이 [그림 4-14]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현황<sup>1)</sup>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 장래인구추계(2022년, 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면 2025~2050년중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폭은 24.9%p로, 울산(+25.2%p)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전국은 19.8%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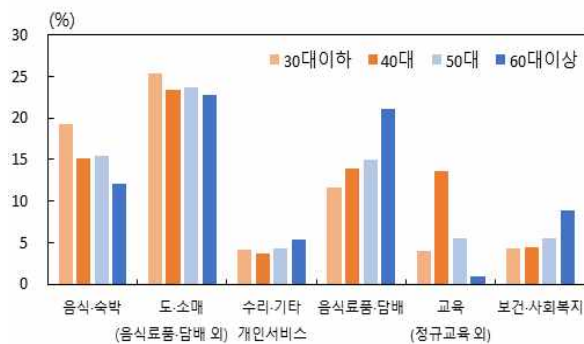
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명목)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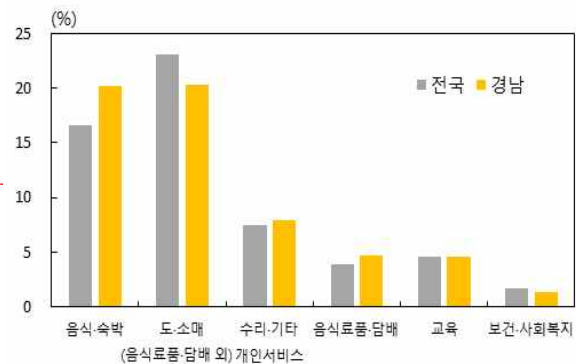
18. 또한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과 도내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 간 불일치(미스매치)가 도내 자영업에 대한 수요 둔화 요인(질적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구조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식·료품·담배, 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비중은 높아지고, 음식·숙박, 도·소매(음식·료품·담배 제외)에 대한 지출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이다.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소폭 더 높은 수준이며, 교육의 경우 60대 이상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는 경남 자영업의 업종별 분포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경남은 다수의 자영업자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음식·료품·담배 제외)에 종사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가 도내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도내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

[그림 4-15] 가구주 연령대별<sup>1)</sup>·항목별<sup>2)</sup> 소비지출 비중<sup>3)</sup>



[그림 4-16] 주요 업종별 자영업 비중<sup>1)</sup>



주: 1) 주황색은 경남에서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연령대, 파란색은 증가하는 연령대  
 2) 가계수지항목별 지출을 자영업 업종별 분류에 맞게 재구성  
 3) 2023년 기준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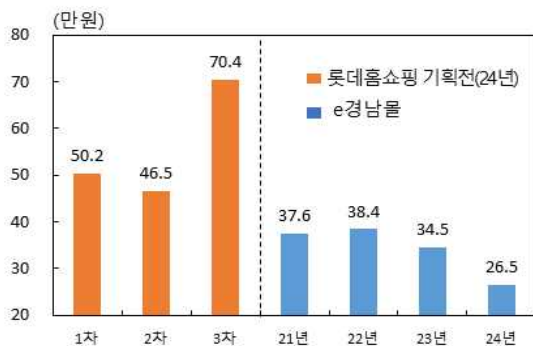
- 경남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 외에도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 도내 자영업자들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인구 감소 및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자영업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1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정책 강화

19. 경남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제고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유출을 완화하고 소비유입은 확대해야 한다. 우선 기존 운영중인 온라인 판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등은 자체 온라인쇼핑몰(경남도청 e경남몰 등)의 홍보와 입점업체 및 회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 사례(그림 [5-1])에 따르면, 대형 민간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수료·광고비 지원 및 투명성 제고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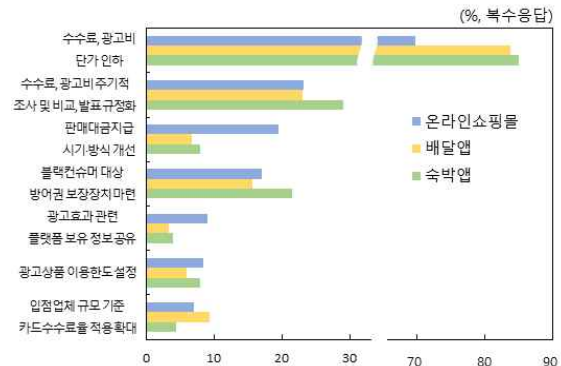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온라인 판로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필요

[그림 5-1] 전자상거래 채널별 업체당 주간 매출액<sup>1)2)</sup>



주: 1) 롯데홈쇼핑 기획전(24년) 개최 시기는 1차 7.29일~9.9일, 2차는 9.10일~11.10일, 3차는 11.11일~12.25일  
 2) 기획전 3차 및 e경남몰 24년은 11월말까지의 자료로 시산  
 자료: 경남도청, 자체 시산

[그림 5-2] 온라인 플랫폼 거래 개선 희망사항<sup>1)2)</sup>



주: 1) 2024년 기준  
 2)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이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20.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타 지역 관광객의 소비유입을 유도하여 도내 자영업에 대한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관광소비의 상당 부분이 다수의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음식·숙박 및 식음료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sup>14)</sup>, 경남은 여타 지역에서의 소비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 업황 개선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소비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

21. 우선 도내 지역축제의 질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비 진작의 수단으로 지역축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경남의 지역축제 수(개최계획 기준)는 2024년 135개로 2019년(66개) 대비 69개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sup>15)</sup>. 하지만 경남의 지역축제당 예산은 2019년 5.0억원에서 2024년 3.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시기별·유형별로 중복되는 축제가 많아 방문객 분산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sup>16)</sup>. 개최시기와 소재가 중복되는 축제들은 시기를 조율하거나 도내 타지역 축제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특색이 없는 축제는 다른 축제와 통폐합하여 킬러 콘텐츠 개발, 홍보 확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축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축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

[그림 5-3] 지역축제 관심도<sup>1)</sup> 및 지역 [그림 5-4] 경남 지역축제 수<sup>2)</sup> 및 [그림 5-5] 경남 시기별·유형별<sup>3)</sup> 축제 축제 수<sup>2)</sup> 추이



주: 1)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 대비 검색 빈도

2) 개최계획 기준

3) '기타' 는 사천에어쇼, 거창한마당대축제 등

자료: Google Trends,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

14) 관광여행 시 여행지에서의 항목별 지출 비중은 음식점(37.0%), 교통(23.0%), 숙박(15.4%), 식음료(8.3%) 순으로 높다.(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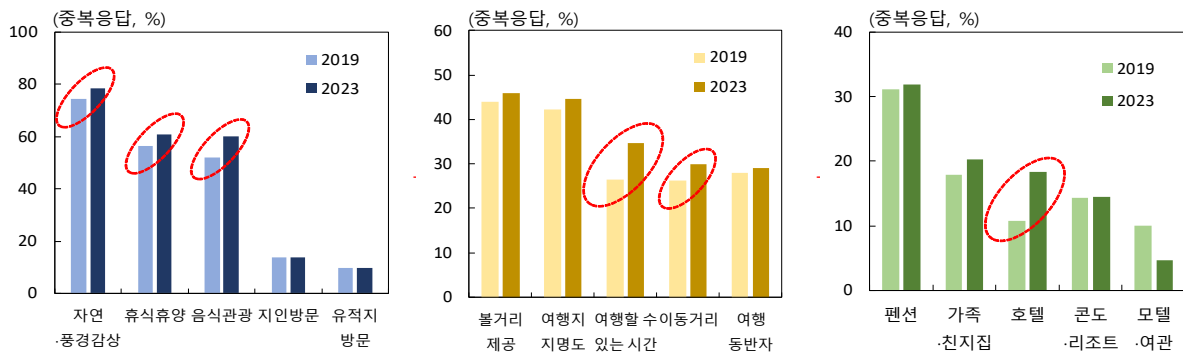
15) 증가율(+104.5%)로는 광주(+162.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16) 오다운(2024)은 지역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 개최될 경우 해당 시기 방문객 및 관광업 매출 증가율이 축제 비집중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2. 또한 관광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여행 시 주요 활동에서 자연·풍경감상, 휴식·휴양, 음식관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남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함께 지리산국립공원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위치<sup>17)</sup>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산물이 있어 최근 유행하는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단순 자연감상 외에도 산악·해안·특산물을 연계한 자연체험 및 미식 관광 여행, 산악명상, 해안스파와 같이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 여행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23.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충남 예산시장<sup>18)</sup> 등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상권 및 도내 특산물 축제 등의 내실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내 산업자원도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경남은 주력 제조업인 조선업과 함께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조선업 역사 교육과 인프라 체험, 항공·우주·방위산업의 기술 전시 관람 등 경남 산업과 연계된 특색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교통 인프라 개선,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객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평균적인 관광여행 기간이 짧아지고<sup>19)</sup> 여행시간과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방문지를 선택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접근 편의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숙박여행에서는 호텔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제고, 주요 관광지 간 연계 교통망 확충, 고급 숙박시설 유치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

**최근 자연·풍경 감상, 휴식·휴양, 음식관광 수요 증가, 접근성 및 고급 숙박시설 중요도 증가**

[그림 5-6] 관광여행시 주요 활동 [그림 5-7] 관광여행시 방문지 선택기준 [그림 5-8] 관광여행시 주요 숙박시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17) 경남에는 전국 23개의 국립공원 중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18)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전통시장과 현대적 시설의 조화, 위생관리 강화, 홍보 다각화 등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 관광여행중 당일여행의 비중이 증가(2019년 50.6% → 2023년 57.9%)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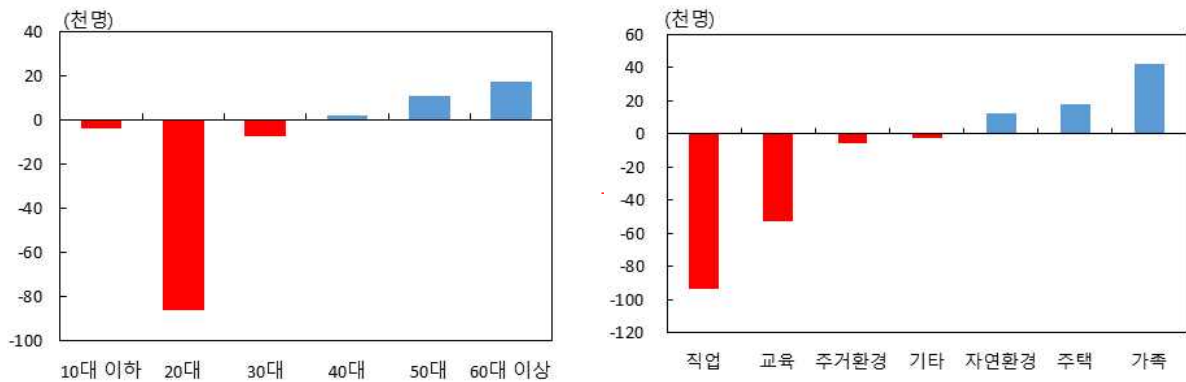
### 3 인구 감소 및 청년층 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강화

25. 인구 감소 및 청년층 유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자영업 수요기반 위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인구이동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인구 순유출이, 40대 이상에서는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자영업 구조와 연령대별 소비구조의 불일치(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인구 유출이 저출생 등으로 이어져<sup>20)</sup>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자영업 수요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26. 특히 직업, 교육 관련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경남의 인구이동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직업과 교육이 인구순유출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교육을 사유로 한 인구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의과대학 유치 및 국립대학교 통합<sup>21)</sup> 등을 통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졸업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2차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과 도내 주력산업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도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야 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사유별로는 직업·교육으로 인한 인구 순유출이 주로 발생

[그림 5-9] 2018년~2023년 중 경남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 [그림 5-10] 2018년~2023년 중 경남 사유별 순이동자 수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 정민수 외(2023)는 2011~2021년 중 누적된 동남권 청년유출로 2021년 동남권 출생아 수가 약 21.9%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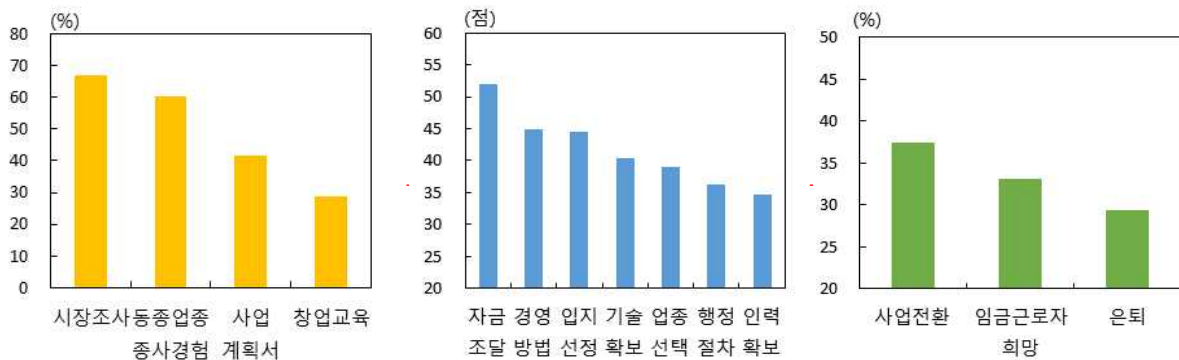
21) 국립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가 통합을 전제로 비수도권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인 ‘글로벌 대학’에 지정되었으며,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 예정이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2024년 글로벌 대학 실행계획서」)

## 4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27.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 자영업자는 창업교육을 받은 비중이 낮고 창업시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경영방법 및 입지선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전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고용원이 없거나 영업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sup>22)</sup>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비대면 교육 및 컨설팅 교육<sup>23)</sup>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8. 한계 자영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폐업, 사업전환 및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들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되, 회복이 어려운 차주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재기 경로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시 은퇴보다는 사업전환 또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교육을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업종으로의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고, 취업 알선 및 교육 훈련 등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업 및 경영 교육 등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업시 전직 기회를 제공할 필요

[그림 5-11] 경남 자영업자 창업준비 [그림 5-12] 경남 자영업자 창업시 [그림 5-13] 경남 자영업자 폐업시  
활동별 수행 비중<sup>1)</sup> 항목별 어려움<sup>12)</sup> 향후 사업체 운영계획<sup>1)</sup>



주: 1) 2022년 기준

2) 응답값(어려움 없음~매우 어려움, 5지선다)에 가중치를 부여(0점, 25점, 50점, 75점, 100점)하여 점수화, 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 없음,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어려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22) 경남 자영업자들은 월평균 24.9일, 일평균 9.5시간을 영업활동에 할애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2022년 기준)

23)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 마케팅, 법률, 회계 등 희망 분야의 전문가가 신청자와 날짜, 시간 등을 조율한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1>

**통계별 자영업자 정의 및 현황**

1. 자영업자는 통계마다 부르는 명칭과 의미가 다양하며, 통일된 규정이나 정의가 없다. 본 고에서는 전국 및 시도별 고용 동향 파악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 통계를 주로 사용하되, 다방면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통계도 활용하였다.
2. 자영업자 통계에는 여타 통계와 달리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포함되며, 소상공인 통계에는 일부 법인사업체(전국 소상공인의 약 12%, 2022년 기준)도 일부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통계별 자영업자 정의 및 현황**

명칭	조사	정의	현황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1.0만명 (2024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42.6만명 (2024.상반기 기준)
개인사업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농림어업 제외)	32.4만개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국세청 「국세통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합계	49.2만명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업종마다 상이)하면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기업(농림어업 제외)	27.7만개 (2022년 기준)

자료: 각 기관



<참고 2>

### 자영업자 부채 분석 범위 및 현황

1. 본 고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이용하여 자영업자 부채를 분석하였다. 「가계부채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 중 약 2.4%(약 110만명)를 임의추출하여 신용 활동을 추적한 패널데이터이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과정 등에서 결측, 오류, 특이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임의추출한 표본데이터이므로 업권별, 상품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대표성이 낮아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집단은 표본자료에 확대배율(표본비율의 역수)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2. 「가계부채DB」상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을 자영업자의 부채로 정의하였다. 2024년 3/4 분기말 기준 경남의 자영업자 대출은 57.1조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 35.8조원, 가계대출 21.3조원으로 나타났다.

### 경남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sup>1)</sup>

(단위: 조원)



주: 1) 2024.3/4분기말 기준  
2) 한국은행 「지역별 여수신」 기준  
3) 한국은행 「가계부채DB」 기준

자료: 한국은행



<참고 3>

**경남지역 소비유출입 구조 분석 방법**

1. 본 고에서는 구현회·이준원(2024)을 참고하여 가맹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주로 본사 소재지로 카드 결제액이 집계되는 업종(전자상거래, 여행, 자동차판매, 보험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유출입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소비 지역은 가맹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경남 거주자 여부는 청구지(카드 회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기준으로 식별하였다.

- ① **소비유출률**( =  $\frac{B}{A+B}$  ) : 경남 거주자의 전체 소비금액(A+B) 중 경남 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B)의 비율
- ② **소비유입률**( =  $\frac{C}{A+C}$  ) : 경남 내에서 발생한 소비금액(A+C) 중 경남 외 거주자가 소비한 금액(C)의 비율
- ③ **소비유출입 비율**( =  $\frac{B}{C}$  ) : 경남 외 거주자가 경남 내에서 소비한 금액(C) 대비 경남 거주자가 경남 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B)

**경남지역 소비유출입 구조**

가맹지 \ 청구지	경남 거주자	경남 외 거주자	합계
경남 내	A (역내소비)	C (소비유입)	A+C (경남 내 소비)
경남 외	B (역외소비)		
합계	A+B (경남 거주자 소비)		

## 참고문헌

구현회(2023), “경남지역 인구 유출입 특징 및 대응방안”,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연구보고서

구현회, 김용재, 이준성(2023),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발전 방안”,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연구보고서

구현회, 이준원(2024), “신용카드사 정보를 이용한 경남 지역의 소비유출입 특징 및 평가”,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연구보고서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2024),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교육부

선진산, 안중섭, 김민수(2024),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오다운(2024), “강원지역 축제 현황 및 발전 방안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연구보고서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2024),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보도자료

최동명(2022),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연구보고서

홍민기, 손연정, 김문정(2022),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통계 비교 연구”, 「정책연구」, 제2022-07호, 한국노동연구원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